

2026 희망봉 <삼일절> 백일장 수상작(심사평: 허영숙 작가)

<초중등부>

응모부문	이름	작품명	시상	상금
	송라희	다시, 내가 그리던 한국으로	우수작	R1 000
	김도현	내 사랑하는 멍멍이 친구	우수작	R1 000
	송라임	단팥 로봇	우수작	R1 000
	나다움	사진첩	가작	R500
	김정현	나무	가작	R500

<일반부>

운문	김민영	카멜레온	최우수작	R3 000
	김꿈	사랑의 왈츠	우수작	R1 000
	이예인	거북이처럼	우수작	R1 000
	이채원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	가작	R500
산문	김태리	오래된 책이 건네는 시간의 숨결	최우수작	R3 000
	이재국	콩잎 장아찌	우수작	R1 000
	김민정	두부	우수작	R1 000
	오민주	작은 선언들	가작	R500
	변동식	남아공과 한국문화 차이	가작	R500

<심사평>

허영숙 (시인, 소설가)

특정 기념일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백일장의 취지는 참여자의 글을 통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K 장학재단의 『희망봉』 공모전은, 3.1 절 태극기를 들고 항쟁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어지는 국가를 위한 애국심의 연장선입니다. 먼 타국에서 노력해주시는 K 장학재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현재와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역사의 뿌리가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희망봉』 공모전에는 출품한 작품 수는 적었지만, 수준은 향상되었습니다. 문학적 소양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봉』 공모전은 문학적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공모전이라 생각합니다.

심사 기준은 장르의 적합도, 내용 구성력, 문장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좋은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응모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일반부 산문 부문

최우수작

김태리 / 오래된 책이 건네는 시간의 숨결

김태리님의 「오래된 책이 건네는 시간의 숨결」은 박경리의 장편소설 <토지>를 재독 하면서 줄거리보다 시대적 상황이 담고 있는 역사 인식과 3.1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토지>는 줄거리 중심이었으나 어른이 된 후, 아이의 책장에서 꺼내 재독 하는 <토지>에서는 역사적 장면 장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시절의 항쟁을, 그 시대에 서 있는 듯한 자세로 알아가고 새로운 인식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작품에 보

여 줍니다. 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읽는 <토지>가 아이에게 더 깊이 있는 역사 인식이 되기를, 과거의 자신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아이를 <토지>라는 책 위에 나란히 놓으면서 기원합니다. 단단한 문장력과 굳건하지 않은 깔끔한 문체, 자연스러운 서술, 주제를 끌고 가는 힘이 돋보이는 좋은 작품입니다. 무엇보다도 3.1절을 맞이한 백일장의 취지에도 부합함을 가산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합니다

우수작

이재국 / 콩잎장아찌

이재국님의 「콩잎장아찌」는 음식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한 시절의 기억이 담긴 사진첩과 같은 존재임을 신선하고 감각적인 문장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일상처럼 맞이했던 밥상의 기억은 음식의 형태가 아니라 그 밥상에서 함께 했던 사람과 계절이 함께 있습니다. 생소했기에 기억에 오래 남는 콩잎장아찌는 그 시절의 나를, 순간의 장면을, 그리고 뜨겁거나 차갑기도 했던 젊은 날의 기록을 담고 있는 집합체임을 단순 사물인 콩잎장아찌를 통해 사유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 작품은, /내게 그 음식은 처음 만나는 고향의 형태/ 한 세계의 입구/등의 세밀한 통찰력과 명료하고 깊이 있는 서술, 단단하고 안정된 문장이 돋보이는 좋은 작품입니다.

김민정 / 두부

김민정님의 「두부」는 사람이 지닌 오감 중 미각은 가장 빨리 행복에 이르게 하는 감각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가 힘을 내게 하듯 음식은 때론 영혼을 어루만지기도 합니다. 타국에서는 귀해서 아껴 두었던 말랑하고 고소한 두부, 자신에게 위로이자 치유의 존재였던 두부를 먹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서, 딸을 위해 어설픈 두부 요리를 만든 아버지의 손

길을 통해 화자는 아버지의 삶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두부는 낫선 땅에서 이루어낸 아버지의 고난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물인 두부에서 자신과 아버지의 삶에 위로를 끌어 낼 줄 아는 사유의 힘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일반부 운문 부문

최우수작

김민영 / 카멜레온

김민영 님의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 몸의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의 습성을 인간의 삶을 투영시킨 좋은 작품입니다. 계절처럼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은 자기 보호색을 만들어야 다치지 않고 견딜 수 있으므로 그 상황에 맞춰 나를 감추어야 하는 삶의 고뇌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지금 나는 어디 있을까 / 아마도 하얀 눈발/ 간절하지만 깊은 사유, 서정적이면서도 감각적 문장이 돋보였으며 주제를 끌고 가는 힘이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우수작

이예인 / 나도 거북이처럼

이예인 님의 「거북이처럼」은 아스팔트 위를 느리게 걷는 거북이의 모습에서, 뭐든 빨라야 하는 속도 지향의 시대, 신호등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세상의 물결을 때로는 버겁게 느끼는 화자의 심리를 작품에서 보여 줍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듯 메마른 아스팔트 위의 힘겨운 거북이를 누군가 길섶에 놓아주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뜨거운 아스팔트 대신 축축한 길섶이 놓아 줄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길을 잡아주는 대상은 바로 엄마라는 존재임을 작품에 따뜻하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김꿈 / 사랑의 왈츠

김꿈님의 「사랑의 왈츠」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박자에 맞춰 추어야 완성되는 춤곡 왈츠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투영한 작품입니다. 박자가 틀리면 리듬이 깨지고 서로의 발을 밟기도 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의 언어가 틀리면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박자가 틀리더라도 서로 손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스텝이 맞아져 춤을 완성할 수 있듯,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사랑임을 리듬감 있는 문장으로 끌어낸 부분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초중등부

우수작

송라희 / 다시 내가 그리던 한국으로

송라희님의 「다시 내가 그리던 한국으로」를 선정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외국으로 간 어린 세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부모로부터 받거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하지 못한 한국은 몸으로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송라희님의 「다시 내가 그리던 한국으로」는 한국에서의 실제 경험을 꾸밈이나 과장 없는 진솔한 언어와 명징한 문장으로 쓴 부분이 돋보였으며 특히 직접 체감한 한국에 대한 묘사는 화자가 겪었을 당시의 감정을 잘 드러내 보였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할머니의 담요에 대한 묘사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한국이 자신을 담요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도 받은 것으로 읽어져 감동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김도현 / 내 사랑하는 명명이 친구

김도현님의 「내 사랑하는 멍멍이 친구」는 강아지 홀리로 인한 감정적 신체적 교감을 통한 치유의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 해주던 강아지 홀리는 운동할 때도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항상 화자의 곁에서 화자를 보호하거나 위로해주는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동물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동물원의 동물까지 확대되어 모든 동물은 인간에게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행간에 담고 있습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 가진 화자의 마음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송라임 / 단짠 로봇

송라임님의 「단짠 로봇」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관심사와 더불어 최근 쟁점이 되는 AI 로봇에 관한 생각을 진솔하고 차분한 어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로봇에 대한 자부심이 애국심으로 이어진 점,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에게 끼칠 문제점까지 사유를 확장한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분명하고 냉철한 자신만의 세계관을 엿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